

민주, 후쿠시마 시찰단 맹공... 日 주장 합리화 '빈손 귀국' 우려

이재명 "오염수 시찰 빈손으로 끝날 듯" 박광온 "방류 반대 국회 결의안 채택 건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명단 공개와 검증 역할 수행을 촉구하며 비판 공세를 폈다.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 위원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한 쓴 소리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어제 잠시 지역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받았다. 많은 국민, 시민이 관심 갖고 참여했고 모든 걸 걱정했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이 짙어졌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은 이미 예상한 대로 빈손으로 끝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출발 때부터 국민 불신을 자초했는데 현지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은 아예 뒷전이고 언론과 스타파퓰만 하고 있다고 한다. 땀땀하면 이렇게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이유가 없다. 결국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일본 주장을 합리화해 주면서 일본 주장 영무세처럼 되풀이하는 정해진 결론 내놓을 가능성 높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21년 발의한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의 내용을 공개하며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린건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편들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결의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회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내용을 담자는 것"이라며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투명성과 과학성, 객관성이 담긴 검증 결과를 여야가 함께 국민께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래 최고위원은 후쿠시마 시찰단을 조선통신사에 비유했다.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통신사 정

사 황윤길이나 부사 김성일 같은 답변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황윤길과 김성일은 같은 일정을 소화하고 왔음에도 상반된 보고를 한 바 있다. 황윤길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성일은 일본을 무시해도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당시 선조는 김성일의 보고를 믿었고 결국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정 의원은 "후쿠시마 시찰단이 돌아와서 '오염수는 깨끗이 처리돼 마셔도 건강에 무해하다'고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능한 선조처럼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 문제 없으니 아무 말 말고 동조하라'는 어명을 내릴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의원은 "시찰단 목표가 오염수 안전성 검증 아니라 오염수 방류 정당성 확보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 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보조를 맞추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김기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주말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혐의 집회에 대해 국면 전환용 장외집회라며 김남국 일병구하기라 규정했다. 정상적 사고와 논리 가졌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궤변"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에게 물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 모



두가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뛰어 들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고 원전 오염수 방류 혐의 집회를 국면 전환용 장외집회라 규정한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 구하기 하고 있는 거냐"라고 쏘아붙였다.

서영교 의원은 "따라갔던 언론인이 후쿠시마에 가서 방사능 측정해봤다. 방사능 수치를 측정했더니 일본 수도에서 방사능 수치 0.1이 기준치라면, 이쪽 기준치는 낮은 게 2.5에서 5까지 가더라는 것이다. 얼마나 높은 상황인가. 시료 채취도 없고 명단 공개도 없고 언론 취재도 없었지만 우리 언론이 그걸 방사능 수치 재고 왔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일본이 IAEA 기준에 의하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일본의 '내로남불'을 소개하겠다"며 "1993년 러시아에서 러시아군이 핵폐기물을 태평양에 방류했다. IAEA 기준치보다 낮아서 방류했다고 러시아

는 얘기했다. 그런데 일본은 당장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자고 하는 등 엄청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또 "1986년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있을 때 일본이 러시아 상공에 전투기를 띄워 상공에서 방사능 수치를 채취했다. 그리고 러시아 뿐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등 서유럽에 대해 12개 관련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방사능 스틱을 먹을 수 없다고 시위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일본이) 이랬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사능 생선을 먹으라고 강요하면 되겠냐"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 말미에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의 생명 보호 책임을 외면하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시찰단 청문회,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겠다. 여당도 당연히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변용일기자

이재명 "청년, 가장 위기인 세대... 정치가 새 희망 만들어야"



민주 청년미래연석회의 4기 출범식

저출생 이슈"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역사를 보면 전쟁이나 기근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언제나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 믿었다"며 "안타깝게도 지금은 기성세대 역시 새로운 세대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청년의 미래는 보통 그 사회의 미래라고 이야기한다"며 "정치는 기본적으로 새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청년미래연석회의가 청년의 입장에서 새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인 홍정민 의원은 "지난 2019년 출범한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는 3기까지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며 "문제인 정부 때 많은 청년 관련 정책을 진행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솟는 물가와 여러 고통 속에서 청년 정책을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지켜 볼 수 없다"며 "청년미래연석회의에서 청년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소통창구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가지 청년 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되는 등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년의 삶이 가장 어렵고 아픈데,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대남과 이대녀 갈라치기로만 청년을 바라보는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문제 삼아 이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가장 절망하고 위기를 겪는 세대"라며 "청년의 새 희망을 만드는 것도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청년미래연석회의 4기 출범식에서 "인류 역사상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미래가 암울한 첫 번째 세대"라며 "극단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민주, 성비위자 영구 복당 불허 등 엄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회의 지속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천시의원 성비위건이 불거짐에 따라 앞으로 성비위에 관해선 당 차원에서 엄벌하기로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강화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최고위에서도 당에서는 성비위 관련해 엄벌하겠다는 대표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성비위자 관련해서 영구 복당 불허가 원칙이고 그에 기준해서 앞으로 계속 징계가 이뤄진다는 말씀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2일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은 이미 시행 중이다. 다음 달 중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에 대한 윤리 교육을 계획 중이다. 중앙당은 국회의원, 중앙당 당직자, 시도당은 지방의원과 단체장, 사무처 당직자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회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전반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는 위성근 의원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불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했고, 특히 윤석열 정부가 시찰단을 발미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 대책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